

◆ Public Library's Today and Tomorrow

공공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1971년도의 회고와 전망—

張 一 世
(국립중앙도서관 지도협력과장)

1. 統計로 본 公共圖書館

每年 12月號이면 各급 도서관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말이 실린다. 우선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에 관계된 몇가지를 統計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昨年 末현재와를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項 目		年 度	1 9 7 0	1 9 7 1	增	減	備	考
館	數		57☆	64	+	7	註 : 지난 1年동안에 7個館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實質的으로 1971年度에 증가한 館數는 3個館이다. 나머지 4個館은 1970年 4月以後 생긴 것이다.	
建物	—延坪數		14,098.7	13,299.23	—	719.47		
	—座席數		13,114	14,754	+	1,640		
직원수	—專 門		113	174	+	61		
	—기 타		334	364	+	30		
	—計		447	538	+	91		
장서수	—東 書		503,999	517,353	+	13,354		
	—西 書		57,428	66,049	+	6,621		
	—計		563,427	583,402	+	19,975		
年間	증가책수		49,686	51,684	+	1,998		
年間	이용자수		2,738,660	3,230,318	+	491,658		
年間	閱책 利수	—館 內		782,306	1,304,075	+		521,769
		—館 外		106,942	15,112	—		91,830
		—計		889,248	1,319,187	+		429,939
예산액	—人件費		64,152,972	87,455,000	+	23,302,028		
	—도서비		20,586,690	45,813,200	+	25,226,510		
	—기 타		92,707,788	134,975,800	+	42,668,012		
	—총 액		177,447,450	268,244,000	+	90,796,550		

※ 이 統計는 韓國圖書館協會 發行 「한국도서관통계」 1970年度版과 1971年度版을 比較하여 뽑은 것이다.

☆ 圖協 統計에는 58個館으로 되어 있으나 釜山市立圖書館 東萊分館을 釜山市立圖書館에 합쳤으므로 前者는 館數에서 빼었다.

이 統計를 통하여 몇가지의 중요한 傾向을 발견할 수 있다.

建物 延坪數에서 감소된 것 이외에는 모두가 增加하였는데, 建物坪數의 減少는 실질적으로 도서관 건물평수가 감소하였다는 것 보다는 건물평수 표시에서 과거에 잘못 되었던 것이 시정된 것으로 짐작되며, 실제로 1970年이후 廢館된 도서관이 없으므로 그리 문제시 되지 않는 항목이다.

중요한 변동사항의 첫째는 公共圖書館數가 처음으로 60館을 넘어 64個館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지난 1年동안에 7個館이 증가한 것은 아니나 서

울에서 해방후 처음으로 市立東大門圖書館이 開館하였다는 사실, 大邱學生圖書館의 開館 등 비교적 規模가 큰 公共圖書館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이 밖에 처음으로 1968年度 以後 문교부에서 추진한 公共圖書館 設置計劃이 結實을 보게 되어 몇몇군데에서 郡立圖書館의 開館을 보게 된 것도 意義 있는 일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言及하겠다. 하여간 지금까지 近 7.8年동안 公共圖書館의 증가를 보지 못하다가 今年에 이르러 이와 같이 增加추세를 보이게 된 것은 精神資源開發이 絶실하게 요청되는 이 마당에 매우 시기에 적합한 발전추세라 하겠다.

둘째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은 公共圖書館에서 일하는 專門職司書數가 지난 1年동안에 61名이나 增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숫자는 前年度에 比하여 50% 이상이나 늘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록 모두가 正規大學의 도서관학과 出身은 아니더라도 準司書講習 등에 의하여 司書資格을 부여 받은 사람이 불과 1年동안에 60명이나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圖書館의 專門性이 社會적으로 認定받게 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圖書館業務가 司書職專門家가 아니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證左이기도 하다. 專門職 61名 증가에 比하여 일반적이 불과 30名 늘어난 것이 좋은 對照가 된다.

세째로 중요한 변동은 年間 利用者수가 270萬名에서 320萬名으로, 약 20%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확실한 統計로 나타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全般的으로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지난 1年동안에 公共圖書館 利用者가 前年度보다 20%, 약 50萬名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어떤 각도로 보든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圖書館數의 增加와 利用者數의 增加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相關關係는 아직 파악되지 아니하나 1970年度 利用者수가 1969年度 利用者수보다 적어졌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매우 注目할만한 發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련된 중요한 사실은 利用冊數도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970年度の 89萬卷에 比하여 1971年度에는 130萬卷 이상이 利用됨으로서 도서 利用率이 48%나 많아졌다. 利用冊數도 1970年度에는 1969年度보다 줄어들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利用冊數는 利用者數와 正比例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폭적인 이용 증가는 매우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중요한 사항으로는 圖書費가 1970年度の 2,000萬원에서 1971年度에는 4,500萬원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증가는 120%의 增加로서 참으로 놀랄만한 일인데, 圖書館으로서 가장 많은 고충을 당하는 것이 도서비이기 때문이다.

물론 총액만으로 볼 때 불과 외국의 웬만큼 큰 公共圖書館 1개관의 도서구입비 밖에 안되지만 빈약한 우리나라 형편에서 年間 120%의 增加는 큰 成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年間 도서증가책수가 昨년에 比하여 불과 2,000冊밖에 증가 안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冊價의 고등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圖書館豫算이 역시 전체적으로 50%이상 증가하였다는 것은 圖書館의 重要

性이 그만큼 認定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圖書館數의 증가, 專門職司書數의 증가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2. 公共圖書館設置計劃

前項에서 약간 言及한 바 있는 公共圖書館 設置 5個年計劃은 문교부에 의하여 1968年度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의 계획으로서는 全國의 各市, 區, 郡 마다 5年 안에 1個의 公共圖書館을 設置하거나 또는 基準未達인 경우는 이를 基準에 맞추도록 擴張하도록 하는 것이 目標였다.

4個年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보면 地方自治團體에 간 公共圖書館設置補助金은 약 1億2千萬원에 달하며, 館數로는 46個館을 위한 補助金이었다. 年度別로 보면 1968年度에 10個館, 1969年度 10個館, 1970年度 13個館 그리고 1971年度에 역시 10個館으로 計 46個館 設置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補助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여되어 지금까지 開館한 公共圖書館이 8個館, 完工後 未開館 14個館, 着工 進行中인 것이 19個館, 前연 着工不能인 것이 5個館이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公共圖書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르러 크게 주목하여야 할 일은 지난 4개년동안의 경험에 따라 앞으로는 명목뿐인 公共圖書館 설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公共圖書館 설치를 위한 정책적인 변경을 관계 당국에서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수년전 부터 거론되어오고 있는 소위 소속청一元化문제가 관계 부처간에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고 문화원과 公共圖書館의 효과적인 운영 내지는 기능 일원화 방안도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보아 앞으로의 몇년은 公共圖書館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3. 公共圖書館發展을 위한 세미나 開催

4개의 館種 가운데서 유독 公共圖書館에서만 자체의 發展을 위한 세미나가 昨년에 이어 계속 開催되고 있다는 것은 자랑할만 하다.

가장 發展이 늦은 分野가 公共圖書館 분야이면서도 가장 發展이 갈망되는 분야가 역시 公共圖書館 분야이다. 정신자원 개발이 온 국민의 희망인 이때 모든 地

域社會 주민에게 봉사하는 公共圖書館의 發展이야말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發展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奉仕活動을 전개하기 위한 자체 力量의 양성은 시기적으로나 자질 향상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다.

2차로 실시된 금년도 세미나의 主題 및 日時, 實施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세미나

日時: 1971년 7월 29일 ~ 31일

장소: 仁川市立圖書館

主題 및 發表者

1. 公共圖書館의 역할
권중협(仁川市立圖書館長)
2. 호주 公共圖書館의 運營실태
(張一世)국립중앙도서관 지도협력과장)
3. 現行 圖書館法上에 있어서의 문제점
윤학구(국립중앙도서관 조사계장)
4. 公共圖書館을 통한 독서상담실 운영
김경일(국립중앙도서관 독서상담실)

제2차 세미나

日時: 1971년 11월 19일 ~ 20일

장소: 전남光州 全日圖書館

主題 및 發表者

1. 公共圖書館에 있어서의 移動文庫의 운영
李鴻球(서울시립종로圖書館長)
2. 독서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예권(전남 강진군립圖書館長)
3. 圖書館 P. R. 문제
김문현(진주시립연암圖書館長)
4. 産業社會에 대처할 公共圖書館의 역할
현규섭(국립중앙도서관 연구계장)
5. 公共圖書館 後援會制度에 관한 고찰
김진수(서울시립동대문圖書館長)

이 밖에 제10회 全國圖書館大會 때에 公共圖書館分科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主題 발표가 있었다.

日時: 1971년 9월 17일

장소: 종로圖書館

主題 및 發表者

1.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司書職의 자질과 지위향상
신학균(국립중앙圖書館 사서과장)
2. 公共圖書館에 있어서 사서직의 신분 인사문제
김기래(국회圖書館 국제교관과)

비록 公共圖書館수가 적고, 公共圖書館에 봉직하는 사서직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위와 같은 세미나를 통하여 착실하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奉仕活動에 임하는 사서직의 精神姿勢의 確立과 보다 나은 對民奉仕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점차로 마련하게 될 것

이다.

물론 세미나의 개최 방법, 발표 주제의 보다 효과적인 선정 등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4. 對外活動

a. 自動車文庫의 設置

우리나라 公共圖書館史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劃期的인 일의 하나가 移動文庫의 設置라 하겠다.

지금까지 국립중앙圖書館이나 仁川市立 또는 釜山市立圖書館에서 일정한 시기를 택하여 臨海文庫와 같은 移動文庫를 설치해 왔었으나 自動車를 이용한 移動文庫설치는 없었다. 自動車文庫의 설치는 우리나라 公共圖書館의 오랫동안에 걸친 宿願의 하나였는데, 금년도에는 두개의 自動車文庫가 創設됨으로써 비로서 우리들의 宿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즉 지난 4월 24일에는 서울시립종로圖書館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自動車文庫가 설치된데 이어, 7월 5일에는 全南 光州에 있는 全日圖書館에서 자동차문고를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두곳에서의 자동차문고 開設이 불과 몇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면 날이 지날수록 놀랄만한 업적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의 活動이 기대됨은 물론 讀者人口확대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립동대문圖書館은 1971년 3월 개관과 동시에 리야카를 가지고 이동문고 운영을 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自動車文庫를 개설할 예정이며, 南山圖書館도 역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972년도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自動車文庫가 여러 公共圖書館에 설치됨으로써 讀書人口의 확대와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폭넓은 圖書館봉사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特記할만한 사실은 自動車文庫가 私立의 公共圖書館에도 설치되었다는 일이다.

1970년 3월에 開館한 全日圖書館은 규모도 상당히 큰 私立의 公共圖書館으로서 光州市民에 대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自動車文庫의 開設로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특히 光州는 光州市立圖書館이 光州學生獨立 운동기념會館圖書館에 흡수된 이래 公共圖書館활동이 사실상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全日圖書館의 개관으로 다시 활기를 찾게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圖書館에서는 自動車文庫운영같은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b. 貸出文庫

국립중앙圖書館에서는 빈약한 公共圖書館이나 또는 새로 개관한 公共圖書館에서의 奉仕활동을 돕기 위하여 국립중앙圖書館 소장 도서를 상당량 대출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도서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公共圖書을 지도 육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 10月 15일에 새로 開館한 扶餘郡立圖書館에 대하여 1,000책을 貸出하였으며, 11月 15일에는 光州學生獨立運動 記念會館 圖書館에 2,400책을 대출하였다.

한편 1968년과 1970년에 각각 대출하였던 坡州郡立圖書館과 原州市立圖書館으로 부터는 모두 1,700책을 回收하였으며, 江陵市立圖書館과 晉州市立圖書館에는 1,920책과 1,500책이 아직 대출중에 있다.

이와 같이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每年 새로 開館하는 圖書館에 중점을 두어 많은 도서를 貸出 해 줌으로서 그 지역사회 국민에 대한 도서 열람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支援해 주고 있어서 지방 公共圖書館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기술한 것은 1971年度에 생긴 일들을 사실대로 추려본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몇몇 대규모의 公共圖書館이 신설되었다는 사실과 自動車文庫의 창설은 今年度에 있어서의 가장 큰 收穫이라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發展으로서만 만족할만 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이지만 좀 더 확고

한 公共圖書館 發展을 위한 국가적인 強力한 施策이 要望된다. 公共圖書館 설치 5개년 계획이 4개년을 지난 오늘날 매우 부진한 결과를 가져온 여러가지의 원인을 당국에서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진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다행히 당국에서는 公共圖書館 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의 요소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의 조속한 시행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이 시행될 때 우리나라 公共圖書館도 획기적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公共圖書館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신 李範昇翁의 銅像除幕式이 지난 9月 17日 서울시立鍾路圖書館에서 배풀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때 여러 圖書館 사람들과 관심을 가지는 여러사람들 그리고 동상건립을 직접 책임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분의 공로를 다시한번 치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公共圖書館이 오늘 날도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 60년전에 이미 이의 중요성을 깨닫고 忠로圖書館을 창설하신 그분의 가룩한 뜻을 우리들이 되새겨 앞날의 발전을 기약하였다는 것은 우리 公共圖書館 역사상 역시 중요한 하나의 계기를 이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2년도에는 금년보다도 더 알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맺는 바이다.

(17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해야만 하겠다.

넷째, 정보처리의 Computer 화

오늘 날의 제제는 정보홍수시대이다. 과거 과학기술 정보량은 15년에 2배로 증가했지만 오늘 날은 6년에 2배로 늘고 경제정보량은 5년에 2배로 는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두 소화시키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KIST에서는 수집잡지에 관한 제반정보를 computer 에 入力하여 효과적인 봉사를 해주고있고 앞으로는 단행본도 computer 에 入力할 예정이다. 앞으로 타도서관도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훌륭한 봉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다섯번째, 국내협동체획

첫번째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한국과학단지내에 있는 KIST, KORSTIC 을 위시하여 앞으로 이곳에 있게 될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개발원, 과학원 등은 자료의 구

배, 정리, Public Service 에 있어 협동체제를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도서관 협동체제를 구성하거나 관중별로 도서관 협동체제를 구성하여 상호협조를 해야만 되겠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network 를 통한 상호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한국특수도서관의 내일은 결코 낙관도 비관도 할수 없다. 위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겠다.

참고자료

1. 조은병; 도서관 상호대차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도서관 1970. 8.
2.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70 1971.
3. UNESCO 통계연감, 1967
4. 太田泰弘; 專門圖書館의 未來象. 圖書館雜誌, 1969. 1